

# GS칼텍스, 국제유가 폭등 폭리잔치

## 전체직원에게 기본급의 300% 격려금 지급키로 ... 임금협상 위임 화답?

GS칼텍스는 4월8일경 전체 임직원 2600여명에게 기본급의 300%를 격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4월6일 발표했다.

GS칼텍스는 임금협상권을 경영진에 위임한 노조의 결정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직원 1인당 평균 700만원 상당의 격려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는 2004년 20여일간의 파업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규모인 8462억원의 수익을 올려 파격적인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2004년 경영실적을 반영해 이미 지급한 성과급(500%)까지 포함하면 총 800%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게 된다.

격려금 지급대상에는 2004년 정유업계 최초의 파업사태로 정직·구속 등 징계처분을 당한 직원 624명도 포함된다. 다만, 해고자 23명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영진은 당초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파업사태로 정직·구속 등 징계받은 직원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허동수 회장이 <격려금> 형태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에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상당액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4/08>